

도가·도교 윤리 사상

① 노자의 사상

도(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 의미 :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 인간의 언어로는 나타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인간의 감각, 인식을 초월함. • 도의 작용 : 되돌아감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 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본래부터 지닌 자연적 본성을 따라 일체의 억지 노력을 거부하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무위자연(無爲自然)	본성의 자연스러움과 어긋나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행동이나 가치관을 거부하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음 → 물이 지니고 있는 낮은 곳을 향하는 겸허(謙虛)와 다투지 않는 부쟁(不爭)의 덕 강조
이상적 인간상	물과 같은 삶을 사는 인간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도울 뿐)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으로 이루어져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 사회
유가 비판	유가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의 규범적 가치들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 혼란의 원인임

② 장자의 사상

도(道)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어디에도 있는 편재성(徧在性)을 가짐
만물제동(萬物齊同)	만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함.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 시비, 선악, 미추의 구별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따른 편견일 뿐
제물(齊物)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경지
소요유(逍遙遊)	인간을 구속하는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시비 구분과 집착을 넘어선 정신적 자유의 경지
수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망(坐忘) :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 심재(心齋) : 마음속에 잡념이 없도록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
이상적 인간상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 인위적인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에 도달한 사람

(2) 도교 사상의 흐름 (도가 사상 + 민간 신앙)

1. 황로학파 (한나라 초기)

- 황제와 노자 숭상 (앞 글자를 따서 황로학파) ::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바탕으로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 강조

2. 오두미교(五斗米教) (한나라 말기)

- 도가의 경전인 도덕경을 암송함.
- 삼관수서(三官手書)를 행하면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도교가 교

단을 갖춘 종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3. 현학(玄學)

-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하였음.
- 청담(淸談) 사상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주제를 토론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있음.

(3) 특징

1. 개인주의·신비주의 및 예술 정신 : 묵색, 여백의미, 소박미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2. 도교의 평등주의 :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EBS 제시문 및 기출 선지

-노자“ 학문을 하면 날로 지식이 늘지만, 도를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 지식이 줄고 줄어서 일부러 하는 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무위하면 안 되는 것이 없게 된다.”
→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노자“도를 잃은 후에 덕이 있게 되었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있게 되었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있게 되었고, 의를 잃은 후에 예가 있게 되었다.”

-인간이란 도(道)에 의해서 본성을 부여받고 생명을 지속하는 존재라고 보았음.

- 현자를 멀리할 것을 주장

:: 예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위자연의 소박함을 잃은 것. 노자는 인위적 규범이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 보아 무위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함.

- 도가 사라지자 덕이 생겼고, 덕이 없어지자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이 생기게 된 것임.

- 인간은 자연에 대해 결코 우월성을 가지지 않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만물은 평등함. 그렇기에 자연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며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음.

- 장자의 “도”- 어디에도 있는 편재성. 이 “도”에서 “덕”이 생기며, 덕에서 구체적 사물이 생겨남.

- 도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귀천, 선악과 같은 것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뿐임.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인간 중심적인 상대적 관점”으로서 만물을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다시 말해서, 귀천, 선악, 윤리성과 같은 것들은 ‘상대적’일 뿐이기에, 이들을 ‘상대적 관점, 사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 문명을 떠나 소박하게 사는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였으며,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힘이 없는 정치’를 내세웠음.
-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 유가의 도와 도가의 도가 가지는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유가, 도가 모두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함.
- 노자는 도가 사라지자 인의가 생겼다고 보았음.
- 도가의 자연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님. 인간의 운명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표현임. 또, 도가의 하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임.
- 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 만물은 획일적 존재가 아니라 각기 나름의 특성을 지닌 존재임.
- 도가 자연의 운행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으나 목적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음.
- 노자는 ‘도’와 ‘덕’이 존송받고 진귀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도가 만물을 생성한 것은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작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즉 도와 덕을 바탕으로 유교가 강조하는 인위적 규범을 부정함.
- 노자는 자연과 합치되는 무위와 무욕을 상덕으로 보았고, 인의예지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하덕으로 취급함.
- “예악”에 대한 공자와 노자의 관점 차이 :: 공자는 예악을 선한 가치라고 여겼으나, 노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해롭다고 보았음.
- 도가사상의 본성은 “윤리적”인 본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임.
- 도가의 “도” = 우주 만물의 근원이나 만물의 변화 법칙.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참다운 도를 파악할 수 없음.
- 도가 : 순수한 마음을 되찾아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자 함. 또 장자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의 변화 현상으로 보았음. 그래서 생사는 기가 흐르는 중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기에 자연의 흐름을 터득한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지 않

는다고 보았음. (반면 유교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주목하는 특징이 있음.)

- 도교와 도가는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도를 따르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도가는 철학적 사상임에 비해 도교는 불로장생과 신선술을 믿는 현세적인 종교임. 도교는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후한 때에 교단 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현세에서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였음. 내세에 대한 관념보다 현세에서의 장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임.
- 대표적으로 오두미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사회적 혼란기에 질병 치료와 더불어 종교적 구원을 약속함. 이들은 빈민을 구제했으며 선행을 강조하였음. 그래서 육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거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틀린 선지임(육체가 오래 사는 것을 추구했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은 유교에서 추구했기 때문)
- 도교 사상은 도가 사상에 민간 신앙적 요소를 더해 종교적 교단을 갖추. 불로장생과 같이 현세에서 행운과 행복을 추구했으며, 도교의 의식 행사 대부분은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음. 또, 도교의 양생술은 우리나라 의학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했음. 도교 의식은 불교뿐만 아니라 무속의 영향도 받았으며, 도교는 민간 신앙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융합되는 경향을 가짐.
- 양주 : 사회에 대한 적극적 역할보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남의 일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섭해선 안된다고 봄.
- 황로학파 : 노자가 말한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천하를 얻는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강조
- 현학은 노자, 장자의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 예술적 논의를 중시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함. 특히 이 중 왕필은 도(道)란 모든 현상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칙이며, 도의 다른 명칭은 '무'라고 보았음. 그는 "'무(無)'를 근본으로 삼는다." 라고 하여 무를 유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의 최종점이자 본체라고 생각하였음.
- 황로학파, 오두미교, 현학은 모두 도가, 도교 사상의 변용으로서 '도'에 따라 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였음.
- 도교는 수기(자신을 수양하는 것 - 유가에서 강조)보다 양생을 강조. 자연에 따라 살기 위해 무지해야 하며(불교는 안 됨. 불교는 무지가 윤회의 원인이라 보았음.), 마음을 깨끗이 하여 외물을 잊어야 한다고 보았음(마찬가지로 불교는 이 선지가 옳을 수 없음. 불교는 잊는다는 것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혜를 얻음으로써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 내단 :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 들숨과 날숨을 최대한 천천히 하여 몸의 기를 자신의 의도

대로 흐르게 함. / 외단 :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 복용하고자 하는 방법. 단약, 선약과 같은 물질을 활용하였음.

- 내단, 외단은 모두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 방법임.

- 공과 격 :: 선행의 표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만들어 졌음. 선약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불로장생을 추구하였음. 나의 행복만큼 이나 타인의 행복도 중요시하였고, 세속에서의 선행을 권장하였음.

★유, 불, 도 모두 창조주나 유일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

노자 기출선지 묶음

※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무위(無爲)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럴기에 규범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였고, 자연의 흐름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이 너무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에 본래의 덕을 상실한다고 보아 백성을 무지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했으며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작은 국가(소국과민)를 지향했다. 그리고 무위무욕(無爲無欲)의 소박한 삶을 선호하였다.

※ 통치자보다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하였으며, 현명한 자를 숭상하지 않게 하였다.

※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욕망과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덕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럴기에 헛된 지혜와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였다.

※ 남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생활할 것을 강조했다.

※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므로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자연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는 스스로 그러한(自然) 것이며, 이러한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시비, 귀천 등은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공을 세워도 뽐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부쟁(不爭)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 사물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으며,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 자연의 일부인 하늘은 도덕(道德)적 존재(윤리적 존재 - 유가의 하늘)가 아니다.

장자 기출선지 묶음

※ 대립과 차별, 세속적 가치, 자아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감에 의한 지식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심을 통해 사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 자연적이고 소박한 본성의 회복을 위한 수양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만물의 모습이 상대적임을 인식하고 소요(逍遙)의 경지를 지향해야 하며, 좌망, 심재를 통해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재물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일체의 구속을 잊어 진인, 지인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장자는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정신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 좌망과 심재를 주장했고,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음을 강조하였으며 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망아(忘我)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몰아일체의 경지에 이른다.

- 자연과 하나가 되어 무위와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겸허와 부쟁의 덕을 최고의 덕이라고 주장하였다.

-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중심적 사고로 만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만물은 도에서 유래하였으며, 만물 속에는 도가 깃들어 있기에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거나, 인간과 자연을 다른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만물을 차별시키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지혜에 속하고, 만물이 하나라는 생각은 큰 지혜이다.

※도가 사상 제시문 (Sample 파일이기에 3개 년 정도를 수록하였습니다만, 본 교재에는 10개 년치 제시문이 모두 수록될 예정입니다.)

참된 도(道)에는 이름이 없다. 도는 통나무처럼 소박하지만 천하의 누구도 도를 부릴 수는 없다. 제후와 왕들이 이를 터득하면 망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17-6)

자연(天)은 안에 있고, 인위는 밖에 있으며, 덕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멀하지 않고, 고의로 명(命)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17-6)

헛기러기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말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룬다고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물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 (16수능)

위대한 덕(德)의 모습은 도(道)를 따르는 데서 나오지요. 만물의 근본인 도는 참으로 황홀할 따름입니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이 도의 쓰임새이지요. (16-9)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진다. (16-6)

굽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깎아내는 것이고, 노끈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16-6)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15수능)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15-9)

오리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 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아픔이

따른다. 본래 긴 것은 잘라서 안 되고 본래 짧은 것은 늘여서 안 된다. 인위[人]로써 자연[天]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 (15-9)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15-6)

들판에 커다란 가죽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그 덕분에 가죽나무는 도끼에 찍히는 일도 누구에게 해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 쓸모 없음[無用]이 곧 쓸모 있음[用]임을 아는 것이 큰 앎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한단 말인가? (14수능)

최상의 덕(德)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仁)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14수능)

작은 새가 대붕(大鵬)의 비상을 비웃으며 “우리는 힘껏 날아 큰 나무에 오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9만 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하물며 교외로 나가는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거늘, 이 작은 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작은 지혜[小知]가 어찌 큰 지혜[大知]를 알겠는가? (14-9)

언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서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무위(無爲)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14-9)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善)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악(惡)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14-6)

“훌륭한 정치란 어떤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훌륭한 왕은 자신의 공적이 온 세상에 미쳐도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란 베풀어지고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만물을 각기 만족시키는 것이다.” (13수능)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선한 사람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대하며,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분별심을 갖지 않는다.(13수능)